

금향로가 차기까지

DECEMBER 2024

www.silkwavemission.com | info@silkwavemission.com | 2111 W. Crescent Ave. Unit E, Anaheim, CA 92801



*Merry
Christmas*

현지에 세워진 교회개척자,
이들의 헌신으로 맺어지는 열매

2024 BTS 마지막 학기 수업을
은혜중에 잘 마쳤습니다.

튀르키예를 믿음으로 가슴에 품으며



SWM Web



SWM 후원



유튜브채널



카카오톡채널



SILK WAVE MISSION



아직도 **후원교회**가 없는 20 Unit의 CP가 있습니다.

**교회개척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연말 후원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쳐보세요**

주의 사랑으로 문안드립니다.

SWM USA 이사장으로 섬기게 된 강민수목사입니다.

저는 레이크뷰연합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6년전 저희 교회는 이슬람권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느끼고 기도하던 중 SWM 선교회로부터 교회개척 리서치트립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이를 주님이 주시는 사인으로 알고 튀르키예 땅을 밟았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저희 교회는 이슬람권의 영적 부흥과 교회개척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튀르키예와 이슬람권을 위한 연합기도운동, 교회개척운동, 선교적 교회운동에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튀르키예와 이슬람권 지역에 여러 사역자들을 통해 10개의 M센터와 80 Unit의 현지 사역자 가정을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며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SWM 선교회와 함께 하고 계심을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사 교회들 및 5,000명의 기도 동역자들이 함께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왕의 대로를 수축하는 SWM 선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뜨거운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후원교회와 연결되지 않은 20 Unit의 CP와
2025년 1월에 열릴 CP 가족수양회,
그리고 크리스마스 난민구제헌금을 위한
연말특별헌금에도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강민수목사 드림

단 한번의 마음이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단 한번의 마음으로도
아버지의 마음이 향한 그 곳에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가 세워질수 있습니다.

연말후원을 통해 교회개척사역
후원도 하시고 세금공제 혜택도 받으세요



Check

Pay to the order of:
Silk Wave Mission

주소:
2111 W. Crescent Ave. Unit E,
Anaheim, CA 92801

※ Check Memo에 현금목적 및
현금영수증 받으실 이메일주소를
꼭 기입해주세요.

Zelle

- ① 사용하시는 은행 온라인 구좌 접속
- ② Transfer/Zelle (Bank of America)
혹은 Quick Pay/Zelle (Chase) 선택
- ③ 받는 사람(recipient)에
[Silk Wave Mission] 추가
- ④ 이메일: finance@swmnet.org

※ Zelle 송금시, Memo에 현금목적 및
현금영수증 받으실 이메일주소를
꼭 기입해주세요.

Online Banking

사용하시는 은행의 온라인 구좌에서
수수료없이 1회 송금 또는, 매월
정기현금 자동인출(ACH)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선교회 재정팀에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문의: 박은경팀장 (finance@swmnet.org / 714-999-86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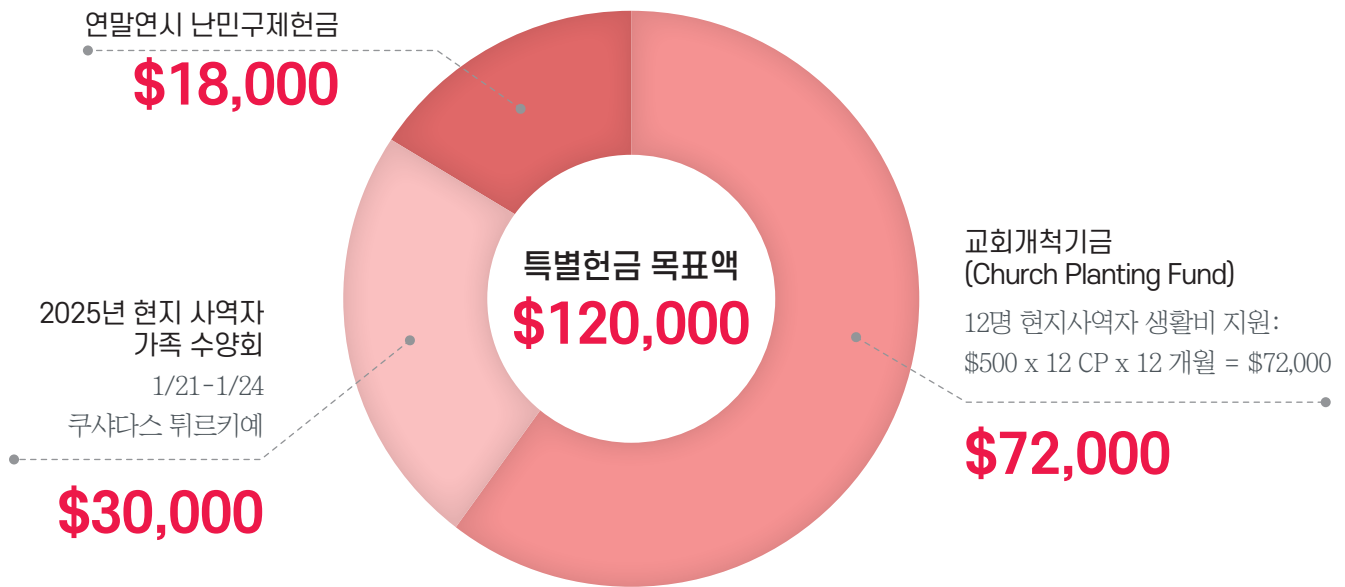
※ 현금 보내주실 때 꼭 현금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또는 이메일주소를 남겨주시면
Annual Donation Letter를 2025년 1월에 발송해 드립니다.

SWM 선교회는 연방정부에 501(C)(3)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동역자님의 헌금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특별 헌금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사랑하는 기도동역자님,

2010년 튀니지의 아랍의 봄(저스민 혁명) 이후 하나님께서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땅과 민족을 흔드시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성령의 역사는 계속 진행중입니다.

튀르키예(터키)와 그 땅에 밀려 들어온 시리아/이라크/이란/아프간 난민들(현재 450만 명 이상)을 향한 교회개척운동 (Church Planting Movement, 약칭 CPM)은 2018년 12명의 현지 사역자들과 동역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개척운동의 비전과 사역에 교회들과 기도동역자들이 동참하면서 교회개척기금(CHurch Planting Fund)을 세우고 이 기금을 통해 현지 사역자(CHurch Planter, 약칭 CP)들이 복음 전파와 교회개척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비와 교회개척 프로젝트 사역을 지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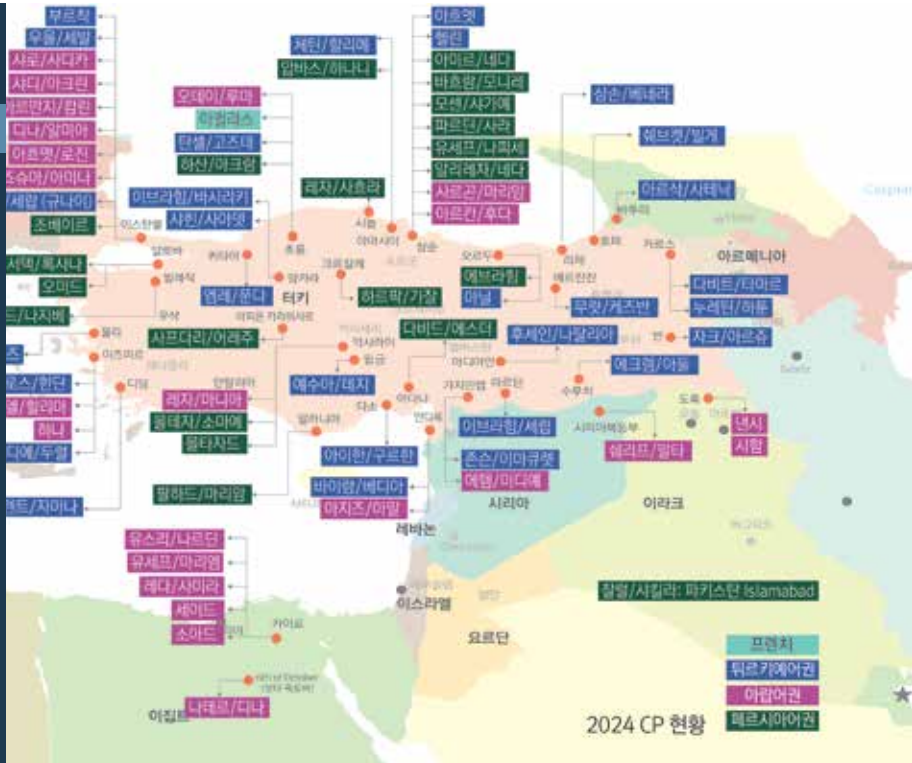
마지막 때 흠여지는 무슬림 난민 가운데 예수 공동체, 교회가 세워지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지난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저희 선교회와 함께 동역하는 현지 사역자(CP)는 현재 80 가정입니다.

그러나 현지사역자 80 가정 가운데 20가정이 기금을 통해 재정 지원은 받고 있지만 후원 교회와 연결되지 못했고 12가정은 재정 지원이 없는 대기 명단(waiting list)에 있습니다. 이 12가정이 교회개척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동역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024년을 12월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기도 동역자님과 가정을 축복하며 이슬람권에서 교회개척운동이 계속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맞이하여 특별헌금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진영 선교사(SWM 선교회 국제/미국 대표)

| Church Planter(CP) | |
|--------------------|----------|
| 80 Units | |
| • 튀르키예어권 | 27 units |
| • 아랍어권(시리아난민) | 9 units |
| • 아랍어권(이라크난민) | 4 units |
| • 페르시아어권(이란난민) | 14 units |
| • 페르시아어권(아프간난민) | 11 units |
| • 이집트선교사 | 9 units |
| • 아르메니아선교사 | 3 units |
| • 남아공 선교사 | 1 unit |
| • 나이지리아 선교사 | 1 unit |
| • 코트디부아르 선교사 | 1 unit |
| • 프로젝트(파트타임) | 6 units |





현지에 세워진 교회개척자, 이들의 헌신으로 맺어지는 열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쉬지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세워진 80units의 CP 들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이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동역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보내온 소식과 몇몇 기도 제목을 간략하게 공유 합니다. 짧은 지면으로나마,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들의 사역이 멈추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 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 금향로가 오늘도 주님 전으로 올려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무함마드 이야기 (성도 간증)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와 축복을 전합니다. 저는 매일 생사의 갈림길을 마주하며, 주님을 따르며 사역중인 무함마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어두운 과거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이라크 바스라에서 일하며 한 자매와 결혼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형이 이를 반대하여 저는 납치와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를 피해 도망한 바그다드에서 저는 한 교회에 초대 받아,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었지만, 얼마 뒤 큰 슬픔

에 빠졌습니다. 왜냐면, 제가 사랑하는 자매가 부족의 공격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슬픔 중에 한 기독교 친구의 도움으로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뒤로 제 삶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이 드러났을때, 저는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오늘까지 생명의 위협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위협을 피해 도망하여 튀르키예로 왔고, 여기서 한 목사님을 만나 성경공부를 하며, 이제 세례를 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협에 매일 직면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세요. 제가 생명의 위협과 각종 박해들로부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에템 사역자(CP, 가지안텝 사역자)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일으키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2024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여 그분과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이행하여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



게 하셨음을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영적 형제자매들의 기도와 지원에 감사드리며,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돌아보면, 올해는 지진때문에 매우 힘든 한 해였습니다. 지진은 이곳에 큰 두려움과 경제 문제를 안겼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계속 축복하셨습니다. 큰 두려움중에는 더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었고, 다 말할 수 없지만, 이 명령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던 한해였습니다. 그 깨달음 이후, 우리는 150개의 새로운 가정을 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새로운 목양팀이 섰고, 그들의 동역으로 우리는 6개의 가정 모임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 중 2개는 여성을 위한 모임입니다. 저의 아내는 어린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모임을 이끌고 있는데, 저는 그녀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덧붙여, 재정소식도 전합니다. 다른 재정문제들은 어떻게든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와 리더십 훈련 모임 장소에 대한 자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동안 지원이 줄어들었고,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 우리는 자체적으로 특별 기금을 요청하였고, 회중이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모으고 있습니다. 마치며, 저희를 위해 기도하실때 다음 5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 (1) 목사 부부에게 하늘의 지혜를
- (2) 신실한 동역자 주시기를
- (3) 150 가정이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 (4) 모임이 양적으로도 성장하기를
- (5) 모임 장소 건물의 필요를 채워 주시기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와 함께 하라 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렘 1:8-9).
저희도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르만지 사역자(CP)

먼저 동행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올해 저희에게 있었던 일들부터 보고합니다!

140명의 성도가 현재 32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교회 개척 목표로 기도하던 A 지역에 17개의 신앙 가정이 새로 생겼고, 매주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벌써 3가정이 풀타임 사역에 헌신했고, 이들을 지원할 재정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져서 예배 장소를 찾고 있는데, 안전한 장소도 필요합니다. 또, 두 개의 새로운 지역에 교회 개척을 위해서도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곳에 있는 아랍 교회가 훈련된 리더를 준비하도록 잘 도와야 하는 숙제도 있습니다. 사역에 제한이 되는 부분들은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난민 이동 제한 문제, 인플레이션과 재정 부족문제, 갑자기 늘어난 많은 성도들을 돌보는 문제 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존슨 사역자 (CP)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매우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리더 부재가 큰 도전이었으나, 2024년 2월부터는 하나님이 저희에게 리더로 성장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4월이 기억납니다. 리더로 헌신한 성도들이 일주일간 기도 모임을 가졌고, 이는 큰 기쁨과 안도감을 온 교회에 주었습니다. 이때, 주일 참석자가 두배 증가했습니다.

또한, "T.프로젝트"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커뮤니티에 무료 교육을 제공했는데, 이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파키스탄에서도 사역을 진행케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도 현지 기독교인들과 함께, 3개의 학교와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파키스탄 A지역에 영적 지도와 교육을 제공하는 복음 본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가족 소식도 전합니다. 2024년 10월에 둘째 아들이 심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개입으로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희에게 신실하십니다!

헤디에 이야기(성도 간증)

지금 집 안은 모든 환란의 소란을 떠나 잠시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저는 튀르키예 삼순의 작은 아파트 소파 가장자리에 앉아, 손을 무릎에 꼭 모으고 기도하며 이 소식을 전합니다.

저는 난민입니다. 하나님은 제게 4명의 자녀를 주셨는데, 지금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식들을 하나님

이 다시 모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몇년 전만 해도, 이런 믿음은 없었습니다. 이란의 위험을 피해 난민으로 튀르키예에 왔고, 그 과정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확실성과 상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이제는 저의 자식들이 다시 한곳에 모여 예배할 날을 확실히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의 큰아들은 신앙생활중 먼저 끌려갔는데, 지금은 체포되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아들의 석방을 위해서도 매일 기도합니다.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에 성취되는 것을 믿게 됩니다.

저는 요즘, 삼순의 작은 교회 모임에 참석중입니다. 교회에 가면, 이란에 있는 딸과 영상 통화를 통해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기도하며 지냅니다. 아들을 위해, 이란의 딸들을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의 미래와 신앙의 자유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이 저의 모든것입니다.

Reem Akleh 이야기(성도 간증)

저는 시리아 전쟁으로 과부가 된, 34세의 R 자매입니다. 이렇게 기도 부탁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전쟁중에 자녀들을 홀로 돌보며 큰 고통을 겪었고, 이를 피해 부모님과 함께 튀르키예로 이주했습니다. 이주 하자마자 큰 지진을 만나 거처가 사라졌고, 우여곡절 끝에 형부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심한 학대를 받아 도망쳐 지금은 이스탄불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경찰에 발각되어 망명을 신청을 시작했지만, 2년 넘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삼순으로 이사하고 재혼했지만, 남편은 결혼 직후 약속들을 저버리고, 저희를 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를 만났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그들도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자녀를 홀로 돌보며 어려움은 여전하지만, 이제 제게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 인도를 간구하며 여러분께도 기도를 요청합니다. 저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희의 정착과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

SWM 사역일정

SWM 선교회의 2025년 사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5 CP 가족수양회

- 기간 : 2025년 1월 21일 (화)-24일 (금) 3박4일간
- 주제 : 부흥 (Revival)
- 장소 : 튀르키예 쿠사다시
- 기도제목 : 주님께서 수양회를 위한 재정을 채워 주시고, 준비 과정속에 함께 하여 주시며, 난민 사역자들의 이동 허가증 발급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모든 현지 사역자들이 수양회에 함께 할 수 있게 하소서

4차 Holy Wave Makers(HWM) 1년 청년선교사

- 기간 : 03/03/2025 (월) - 08/08/25 (금) 6개월
- 장소 : 튀르키예, 요르단, 이집트, 그리스, 아르메니아, 조지아
- 기도제목: HWM 훈련에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훈련되게 하소서

교회개척리서치트립(CHurch Planting Research Trip)

- 기간: 03/10/25 (월) - 03/19/25 (수) 8박 9일
- 대상: 각 교회 목회자, 선교 담당자

영어 교사 세미나 (English Teaching Institute)

- 일시 : 04/07/25 (월) - 04/10/25 (목)
- 장소: 시카고 레이크뷰연합교회

상반기 연합비전트립

- 일시 : 04/21/25 (월) - 04/30/25 (수) 9박 10일
- 대상 : 모든 성도
- 장소 : 튀르키예

Oasis Learning Center Summer English Camp

- 일시 : 6/7(토)~21(토)
- 대상: 샤리아 예지디 캠프와 시리아 쿠르드 난민(12명 *5반)
- 장소 : 북이라크 / 도혹

B/T/S



2024 BTS 마지막 학기 수업을 은혜중에 잘 마쳤습니다.

김기수 팀장 (SWM 선교회)

지난 2022년 부터 시작된 제 1기 Bible and Theological Studies 마지막 학기 수업이 은혜중에 잘 마쳤습니다. 이번 2024년 10월 29일부터 알로바 아코이 리트릿 센터에서 진행된 제 6학기 수업은 첫째 주에는 교회개혁과 성장이라는 과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Dynamic Church Planting International 소속의 빌 코스그로브(Dr. Bill Cosgrove) 박사님과 죠 콘츠(Dr. Joe Kontz)박사님의 '교회 개혁의 필수 요소 (Church Planting Essential)'라는 주제와 '건강한 교회의 역동성(Healthy Church Dynamic)'이라는 주제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교회 개혁의 가이드를 얻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두번째 주에는 레인(Dr. Lane) 박사님의 '신약성경 속의 서신

서(NT-Epistle)'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룹별 나눔과 토의를 통해 서신서의 깊은 영성을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다섯번의 학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마지막 학기에도 허강한 선생, 팔하드 사역자, 강필립 선생의 찬양 인도와, 키보드 반주에 엠레 사역자, 탄셀과 웨브겟은 드럼 등 학생들의 찬양인도와 섬김으로 매 강의 시간마다 약 30여분 정도 기도와 예배로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엠레 학생 후기

두 교수님의 DCPI 강의는 매우 좋았습니다. 특히 교회 개혁에 대해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토끼 교회, 호랑이 꼬끼리 교회



에서 코끼리 교회 형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유용했습니다. 레인 박사님도 편지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교 여행 중에 쓴 편지를 구별하고 베자 하우스 편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의 소망은 이 훈련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계속하도록 도와주세요.

허강한 학생 후기

첫번째 주의 DCPI의 빌 코스그로브 교수님과 조 콘츠 교수님의 강의는 실제적이고 현실 적용 가능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교수님들의 그동안 임상실함과 현장 경험을 나누어주셔서 생동감 있고 효율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주의 신약성경 속의 서신서에서도 그룹 토의를 통하여 다양한 시각의 느낌들을 나눌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BTS는 교회 개척 사역자에게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현장에서 CP를 협력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CP 들을 영적으로 훈련하는 일입니다. 선교현장에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기도와 함께 신학적인 교육은 앞으로도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지난 매 학기마다 약 20여명의 학생들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1기 졸업식이 2025년 1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가장 귀한 열매는 체계적인 성경과 신학교육을 통하여 교회 개척자들에게 지식과 경험이라는 풍성한 결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2025년 제 2기 BTS 과정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5월 20일부터 30일까지 두 주간 성경해석학 과목과 구약성경 연구를 통해 말씀 연구와 효과적인 복음사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의를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HWM4기를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주님 청년들을 보내주십시오

SWM Korea 임동혁 디렉터

청년선교사 지원자 0명

세상이 전쟁과 여러 어두운 이슈들로 가득 차 희망적인 소식이 그리웁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 지금은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시대임에 분명합니다. 철옹성 같은 이슬람권의 장벽에 금이 가며 추수의 소식이 계속되고, 셀 수 없는 새신자들이 전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 SWM 선교회가 이슬람권의 교회개혁자(CP)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상 강력한 하나님의 선교 전략에 사용되고 있음에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SWM선교회는 20-30대들이 이러한 튀르키예와 중동 그리고 이슬람권에서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마지막 때 지상 대명령을 성취할 차세대 선교사들로 세워지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라는 뜻을 품고 지난 HWM 3기까지의 총 13명의 청년 선교사들의 훈련을 수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시작 예정되었던 HWM 4기는 지원자가 없었고, 내년 25년 3월로 전체 일정을

연기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본래 청년들을 선교에 동참시키는 일이 늘 쉽지 않았지만 이 기간동안 우리는 청년 동원의 어려움을 깊이 직면하며, 차기 기수 모집을 위한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년세대를 이해하며 SWM선교회에 주신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청년들에게 전수할 절호의 기회이리라 믿으며 도전의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금 써주소서

청년 세대는 날이 갈수록 종교적 일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성공, 돈, 편안함 혹은 무목적과 무계획이 대신인 이 세대의 관심은 결국 신을, 하나님을 정말 만나야만 건조한 인생의 참 의미를 찾을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종착합니다. 기독교 청년들조차도 살아있고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고 만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개중에는 분명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선교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꿈이 없는 세대이지만, 하나님의 꿈만이 청년들의 심장을 뛰게 할

유일한 ‘꿈’이라 믿으며 HWM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사람의 꿈에 한걸음 다가갈 통로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HWM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갈 뜨거운 청년들을 위한 소통의 지름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WM의 선교지역이 중동 및 이슬람권을 향하고 있다 보니, 선교에 대한 개념이 잡히지 않은 청년들보다는 영적으로 긴급하고 시급한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는 청년들의 지원율이 높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HWM 1~3기 수료자 대부분의 지원 동기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땅 중동’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직접 그 땅을 밟으며 경험하고 싶다는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HWM의 수료생들은 단순히 선교가 무엇인지 경험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넘어서 그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실제적 장기 선교 헌신까지 연결되는 특별한 결과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HWM은 중동 및 이슬람권을 깊이 이해하고 헌신하게 하는 선교운동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HWM이 가진 엄청난 강점과 귀한 네트워크 자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4기의 지원율이 0%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교회 역사에 선교적 자원이 많았을 때가 없었고, 특별히 대한민국에 주신 큰 축복으로 경제와 문화의 대 강국, 세계 여권 파워 3위의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대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앞선 세대와 주님 앞에서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중동을 깨우시고 부흥케 하시는 과정속에 한국과 미국의 한인교회, 특별히 HWM을 사용하기 원하시는지에 관한 마스터 플랜을 점검하고 새롭게 준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HWM의 상황을 측정하고, 사역활동과 성과를 기도하며 분석하여, 교회들에게 청년 선교의 중요성을 더 잘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 리모델링 작업중에 있습니다. 또한 HWM홈페이지가 개설되면 교회와 성도님들이 더 쉽고 알찬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HWM 4기는 25년 3월 3일(월)~ 8월 31일(주일) 로 일시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4기는 1년과정에서 6개월 과정으로 기간을 단축하여 진행됩니다. 4기에는 청년선교사들이 먼 곳에

서도 소식을 듣고 달려와 동참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 동역자님들께서 함께 기도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청년에게 꿈과 비전을 부어주소서

저는 아직도 18억의 무슬림이라는 수를 들으면 그 수에 자주 압도당합니다. 아직도 전 세계에 하나님이 이루어셔야 할 지상 명령의 과제가 쌓여 있다는 영적인 부담감인 것 같습니다. 복음의 문이 철저히 닫혀 있는 것 같은 나라에 사는 소외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 스스로 질문해봅니다.

대답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언제나 늘 새롭게 지금 우리의 교회는 또 한번의 큰 변화의 시점에 와 있다 라는 확신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러셨듯 20-30의 젊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길 원하십니다. 새로운 선교의 부흥의 때가 열릴 것입니다. 영화, 음악 외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호화를 누리는 한국은 분명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 택함을 받았습니다. 위로는 북한, 옆으로는 중국과 일본이라는 거대 미복음화 국가를 곁에 두고 있지만 통일한국 이후의 한국교회는 분명 이슬람권의 복음화를 위한 국가적 부르심을 옷 입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나라가 물론 특별하지만, 한국 교회의 청년들을 통한 새로운 선교 운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그 일을 위해 SWM 선교회도 기도와 노력,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청년이야!
일어나라!
로

튀르키예를 믿음으로 가슴에 품으며

최재훈 팀장 (SWM 선교회)

처음 2차 연합비전트립을 계획하고 모집을 할 때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선교회에 문의해 왔다. 이제 어느덧 COVID 19이 수그러들고 교회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으며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대위임령에 다시금 집중하기 위해 잃어버린 땅,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보이는 듯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열의와 현실은 달랐으며, 마음만으로 비전트립에 참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30여 명이 관심을 보이다가 출발 2달도 채 남기지 못한 시점에서 10명 만 신청하게 되어 연합팀을 결성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간구로 연합비전트립을 준비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둘씩 사람들을 채워주셨고, 결국 출발 당일에는 3교회(OC한인교회, 달라스빛내리교회, 나성한인교회) 21명의 인원이 채워져 주일 예배를 마치고 튀르키예 이스탄불로 떠나게 되었다.

연합비전트립 팀이 이스탄불에 도착하자마자 이즈밀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저녁은 기내식으로 하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호텔에 도착하게 되었다.

정신없이 도착하여 이즈밀에서 하룻밤을 묵은 연합비전트립팀은 서로의 어색함을 뒤로하고 앞으로 9일동안 이 튀르키예 땅에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고, 인솔하시는 이샘 선생님과 규벤을 따라 소아시아 지역 계시록 7교회들을 방문하였다.

기둥과 교회 자리만 있는 모습에 모두가 실망한 듯하다. 이스라엘의 성지들과는 사뭇 달랐다. 이슬람의 기독교에 대한 소홀함이 안타까움으로 전해지는 것 같았다. 성경에서 말하던 그 찬란하던 초대 교회 모습을 조금이라도 찾을 것이라는 기대했기 때문이었을까?



돌아보는 곳 마다 돌과 기둥만 남아 있는 모습에서 신자로서 이러한 곳들이 지켜지지 못함에 대해 모두 가슴이 아파했다. 그러나 각 교회를 방문하고 지역을 방문하며 설명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보니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며 각 교회에 대한 평가들이 모두의 가슴으로 이해되기 시작했고, 모두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됨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덧 여행하다 보니 미국을 출발할 때 가졌던 각자의 병적 염려를 잊고 있었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한 걸음씩 발을 떼었다.

감바도기아를 방문하여 지하도시에 들어갔을 때는,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켜려는 믿음의 선배들의 열정을 깨닫게 되었고, 그들의 신앙 앞에 더 편안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이러한 귀한 모습들을 마음에 담고 이스탄불에 돌아와 OC한 인교회가 섬기는 아르만지 사역자의 교회를 방문하여, 이슬람권에서 생명을 걸고 신앙 생활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만나게 되었고, 언어는 다르지만 같은 곡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으로 하나되는 귀한 시간을 갖기도 했다. 그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모두가 하나였다.

다음 날 이스탄불 M 센터를 방문하여 어려운 가운데에도 기도의 불과 성령의 불을 타오르게 하는 주님의 귀한 사명자들을 만나 예배드리고 맘껏 찬양함으로써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느꼈으며, 아야 소피아 교회를 방문하여 무슬림들이 교회에 한 일을 보게 되었고 이슬람 고고학 박물관을 방문하여 그들의 문화와 전쟁의 자취를 배우게 되었다. 말로만 듣던 이슬람의 실상과 역사를 느끼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연합팀은 매일 저녁, 호텔로 돌아와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고 각자의 소감을 소개하며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연합비전트립을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부터 참여하게 되었다고 간증한다.

어느 권사님은 유럽여행을 준비하다가 취소되었는데, 김진영 선교사님의 세미나를 듣고 결단하게 되었고, 어느 분은 튀르키예 출장과 맞물려 기대없이 신청하였다고 한다. 어느 분은 여행이 좋아서, 어느 분들은 지교회 선교회에서 가게 되어 목사님을 따라왔다고 한다.

잘 준비된 여행 패키지일 것만 같았던 여행에서, 팀 모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로부터 이땅에 부르신 소명을 깨닫게 되었고 이 비전트립을 통해 앞으로 각자

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신자로서의 하나됨을 공감하게 되었다. 하나님 밖에 해결하실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연합팀은 모두가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고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는 귀한 여정을 갖게 되었다.

이번 연합비전트립을 통해 참여자들은 설교 말씀으로 들었던 말씀들이 살아서 각자의 마음에 은혜와 영성으로 임하는 것을 체험했으며, 어려운 가운데에도 신앙을 지키려던 믿음의 선배들을 만남으로써 진정한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되었고, 같이 이 땅에서 예배드렸던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임을 깨달아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파 걱정했던 모든 염려들을 믿음으로 떨칠 수 있었던 감사의 시간이었다.

이번 2차 연합비전트립 팀은 지금까지 자신의 교회에서 또는 선교위원회에서 막연히 보내고 준비만 했던 선교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부대끼며 경험해 봄으로써 잃어버렸던 이슬람권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었고 이를 통해 예배와 선교에 대한 마음을 회복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튀르키예를 떠나며, 앞으로 신앙 생활과 선교에 대해 변화될 자신을 생각하니 모두가 가슴이 벅차올랐다. 자신의 교회로 돌아가 다른 성도님들도 기회가 된다면 직접 참여하여 신앙을 다지고 믿음을 결단해 보라고 권면하겠다고 한다. 또한, 21명의 참가자 모두는 이곳 튀르키예에서 경험한 순간들과 만났던 영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이땅과 이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것이며, 앞으로 SWM에서 주관하는 Outreach와 선교에 동참하겠다고 다짐해 보았다.

SWM 연합기도제목

1. 올해 한해 동안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운데 저희 각자와 가정과 사업과 교회, 그리고 SWM 선교회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올려 드립니다.
2. 마지막 때 오직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 온전하신 뜻만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더욱 소망하며 왕의 대로를 수축하게 하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및 헤즈볼라(레바논)와 후티(예멘), 그리고 이란과의 분쟁이 평화적으로 속히 종결되게 하소서!
3. 무슬림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슬람의 거짓의 영, 두려움의 영, 폭력의 영의 정체가 날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슬람권의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편안하게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4. 연합기도운동(UPM/United Prayer Movement)를 통하여 튀르키예와 중동 및 이슬람권에 진정한 영적 돌파와 부흥이 더욱 강력하게 임하게 하시고, 교회개척운동(CPM/Church Planting Movement)을 통하여 성숙한 교회개척자들과 건강한 지역교회들이 현지에 계속 세워지게 하시며, 선교적교회운동(MCM/Missional Church Movement)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게 하소서!
5. 특별히 2018년부터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시작된 교회개척운동(CPM)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계획과 방법대로 잘 진행되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재정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며 잘 감당하게 하소서!
6. 현지 사역자의 성경/신학 과정(Bible and Theological Studies, /BTS) 1기의 3년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2025년에 새롭게 계획하는 BTS 제 2기 학생들과 교수진과 필요한 재정을 주님께서 신실하게 채워 주소서!
7.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을 기억하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향해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속히 성취되게 하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